

정유기업, 국제유가 40달러 예상

SK에너지 · GS칼텍스, 의견 일치 ... 원/달러 환율은 상당한 차이

정유기업들은 2009년 국제유가를 40달러 안팎으로, 원달러 환율을 1300-1500원 사이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기업들은 수출입 물량이 많아 국제유가와 환율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유가와 환율이 출렁거릴 때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 경영지표들도 연동하고 있다.

SK에너지는 1달러당 원화 환율이 1원 상승할 때마다 30여억원의 환차손을 입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로 정유기업들은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2008년 2/4분기에 깜짝 실적을 올렸으나 유가가 급락하자 매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울상을 지었다.

GS칼텍스를 주축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GS그룹은 2009년 매출 목표를 2008년(48조원)에 비해 무려 26%나 감소한 36조원으로 축소했다.

2008년까지는 고유가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수혜를 입었지만, 2009년에는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유기업들은 2009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안팎에서 시소게임을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은 2008년 12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연료 구실을 하기 위한 바람직한 원유 가격대는 60-70달러 선이지만 세계 경제 침체로 말미암은 수요 위축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GS칼텍스도 비슷한 가격을 전망했다. GS그룹에 따르면, 2009년 경영계획을 짜면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40달러 선으로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율전망은 의견이 다소 엇갈렸는데, SK에너지는 원달러 환율 전망을 1300-1400원을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1700원으로 치솟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이에 GS칼텍스는 달러당 1500원 선에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15>